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3. 30.(목) 11:00 < 3.31.(금) 조간 > 배포 2023. 3. 30.(목)

산업부, 보잉과 미래 항공산업 협력 확대

- 미래 항공기 개발에 한국기업의 선제적 참여
- 보잉의 한국 내 협력업체 발굴을 위한 '보잉공급망 회의'의 정례화
- 보잉 코리아 연구개발(R&D)센터 인력 확대 및 추가 투자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3.30.(목),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보잉사의 미래항공기 개발업무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씨넷 부사장을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으로 글로벌 항공산업 공급망 시스템이 흔들리는 가운데, 보잉사 고위층이 방한하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으로써의 전반적인 제조역량, 기술력, 첨단인력 등을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산업부와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보잉사 간의 미래 항공기 개발에 한국기업의 선제적 참여, 보잉의 한국 내 협력업체 발굴을 위한 '보잉공급망 회의'의 정례화, 보잉코리아 R&D센터(BKETC; Boeing Korea Engineering and Technology Center) 인력 확대 및 추가 투자 요청 등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보잉이 개발하고 있는 미래 민항기(Future Commercial Aircraft) Project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 기업들이 사전 설계 단계부터 연구개발(R&D)과 지분투자 등을 통해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요청하였다. 보잉 측은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KAL) 현장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협력 분야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4.3.(월) 부산에서 열리는 '보잉공급망 회의'는 한국에서는 8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한국의 70여 개 기업이 보잉사와 1:1 면담을 통해 보잉과의 거래 가능성을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산업부는 이런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줄 것을 보잉 측에 요청하였고, 보잉 측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잉코리아 R&D센터(BKETC)는 ‘19년 설립된 이후 현재 60여 명의 한국 연구인력이 근무 중이며, 단계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2030년 300여 명이 근무하는 명실상부한 보잉의 글로벌 핵심 R&D센터(항공과 연계한 AI, 반도체, SW 중심)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산업부도 그에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마이크 씨넷 부사장은 “이번 방한 계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을 현장방문하여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 적용가능한 설계 및 제조 생산능력, 다양한 공정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살펴보고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장영진 1차관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기업과 시장 중심의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과 교육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한국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여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중임”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항공기업인 보잉이 한국 내(內)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장 차관은 “한국 항공산업이 최근 FA-50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수출, KF-21 차세대 중형전투기의 성공적인 시험비행 등을 통해 큰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언급하며, “향후 민항기 부문에서도 한국 정부·기업과 보잉이 앞서 논의한 의제들을 조금씩 진전해 나간다면 보잉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서도 한국정부와 기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 프로젝트화 및 연구개발(R&D)추진 등으로 성과를 조기 거양할 수 있도록 보잉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국 우주항공팀	책임자	팀 장	김봉석 (044-203-4305)
		담당자	사무관	임형남 (044-203-43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